

第144回國會
(閉會中)

勞動(內務委員와
連席會議)委員會會議錄 第17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9年1月24日(火)
場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145號室)

議事日程

- 1. 豐山金屬에警察力을投入한問題에대한質問(계속)

審査된案件

- 1. 豐山金屬에警察力을投入한問題에대한質問(계속)..... 1面

(零時1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次 勞動委員會를 內務委員會와 連席하여 開議하겠읍니다.

1. 豐山金屬에警察力을投入한問題에대한質問
(계속)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豐山金屬에警察力을投入한問題에대한質問을 계속해서 上程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內務委員長께서 12時前에 끝내도록 會議을 進行해 주시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로서가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는 內務 勞動 各黨의 幹事 어른들도 다 계셨읍니다. 저로서는 12時가 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읍니다. 그래서 本案에 質疑委員도 처음에는 아홉 委員이 申請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정을 해서 各黨에서 한 委員씩 質疑가 되도록 이러한 結果도 가져왔읍니다.

이러한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子正을 넘겨서 이렇게 여러 委員님들을 고생하시게 한 점에 대해서 본의든 본의 아니든 간에 結果의므로 勞動委員長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盧武鉉委員 質疑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어떻게 勞動組合으로서는 자기 事務室을 가지고 안에 書類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잠겨놓고 있었읍니다. 평소에도 아니

事務室을 비울 때는 항상 잠그고 다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험상 조그만 團體라도 機密 書類를 가집니다.

企業體의 機密書類 또는 一般書類라도 조금만 文書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탈취되었을 때 반드시 구속되는 사례만 보아 왔읍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金海地方에서는 어떤 國會議員의 選舉關係 書類가 뒤에 누구에 의해서 복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역시 구속되는 사례를 보아왔었읍니다.

오늘날 勞動組合의 書類가 이와같이 무참히 가치없이 탈취당하고 지금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被害法益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治安을 責任지고 있는 長官의 觀에 관해서 유감을 표현하면서 다음 質問을 드리겠읍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그것은 勞動組合의 書類가 전부 警察에 의해서 탈취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盧武鉉委員 누군가에 의해서라고 말씀드렸읍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추측컨대 하여간 警察이 現場에 勞組事務室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書類가 과연 警察에 의해서 전부 탈취되어 왔고 현재도 어떤 상태로 있는지 우리 나름대로 조속히 조사해서 돌려줘야 될 書類면 돌려주고 또 警察의 所管 안에 있지 않단는지 하면은 또 나름대로 措置하도록 하는 문제를 現地 警察에 治安本部를 통해서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盧武鉉委員 本委員이 문제삼는 것은 이미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다만 여기에 法이 침해가 없다고 하는 答辯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알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당시에 자다가 勞動者들이 警察署로 맨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었던 「잠바」들은 다 벗어 던지고 갔습니다. 벗어놓고 끌려갔는데 여기에 끌려간 사람중에 꼭 구속이 되어야 될 사람이 대부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는 어떻게 불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에 끌려간 사람중에 몇 사람이 구속되었습니까?

구속된 8名중에 몇명은 바깥에서 진압대 이외에 구속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25名이 그날 끌려가서 5名 정도가 구속되면 20名 정도는 밤중에 끌려갔습니다.

구속된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었는지 그것은 별론으로 해 두고라도 그건 이미 判事가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不拘束된 과연 緊急拘束의 요건까지 갖추어졌는가不拘束處理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밤중에 무자비하게 맨발로 끌려가가지고 警察署에 끌려가가지고 와들와들 떨면서 하루종일 취조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무런 法益을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家族의 불안감 그들의 공포는 法益이 아닙니까?

○內務部長官 李漢東 그것은 勤勞者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일부 구속이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報告받기에는 한 사람의 어떤 부상을 입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報告를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외 무슨 連行過程이나 調査過程에서 무슨 不祥事가 또 그 후에 있었다 그런 報告도 못들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금방 지적했던 그것 자체가 法益이 침해된 것이냐 아니냐를 물은 것이지 다른 不祥事 여부를...

○內務部長官 李漢東 말하자면 犯法을 한 그런 혐의로 連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상 憲法이나 勞動爭議調整法 등에 의해서 防衛產業體에서는 일단 勞動再議行爲는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 정도 조사받고 하는 것을 감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委員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不拘束處理된 사람이 야밤중에 이렇게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런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조사받는 것은 다른데서 받는 것이지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조사받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심각한 것은 公益과 私益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제인데요. 勞動組合運動 자체가 不法罷業을 4·5日間 했다고 해서 勞動組合 存在 자체가 부정 당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해서 勞動組合 자체가 부정 당했고 앞으로 勞使間의 원만한 타협의 不可能마저 점점 멀어져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점과 관련하여 勞動部長官에게 한 마디 質問하겠습니다.

지금까지 總會 형식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 또는 그 전부터 豐山金屬의 勞使紛糾에 관해서 경과를 꼭 알고 계시지요? 地方事務所로부터 報告 받으셨지요?

○勞動部長官 張永錫 예.

○盧武鉉委員 그 報告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었던 바에 따르면 지금 어떻습니까? 公權力이 介入한 것 이후 正常操業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

물음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 당시 적어도 88年12月31日 그리고 1日부터 31日까지의 報告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豐山金屬의 안강工場이 도저히 紛糾가 수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錫 그렇게 하나하나 단적으로 말씀을 도리는 것보다는 어떻든간에 公權力 介入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00t의 火藥이 있고 또...

○盧武鉉委員 다른 문체는 말씀하지 마시고 수습될 可能性이 어떤 경우 어느 정도이면 앞으로 수습이 되겠다 전혀 가망이 없다 점점 악화되겠다고 보셨는지 조금씩 조금씩 수그러 들어 간다고 보셨는지 그런 것을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저는 모두에도 李海瓚委員께서도 그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아주 현장에 다녀오신 입장에서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여러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저희들 勞動部로서는 하루빨리 이것이 事態收拾이 되어서 정말 國防部에서 요구하는 生産量도 할 수 있고 또 安康市民이 거기에 生計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느 委員님 말씀에 제가 땀구가 날 정도의 말씀도 하셔서 地方經濟에도 큰 문제가 있고 또 勤勞者들 生計問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수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李海瓚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補充의 答辯입니다마는 그 企業主側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勞動部當局으로서 지금 현재 이런 狀態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더라도 操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자꾸 本委員이 묻는 것과는 알고 싶어 하는 것과는 다른 答辯을 하셔서 자꾸 김을 빼시는데요 안타깝습니다. 本委員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당시 勞動部에서 이것이 앞으로 차츰차츰 妥結의 機微가 보인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정말 惡化되어 가고 있다고 본 것인지 12月31日 狀態를 그대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12月22日 일단은...

○**盧武鉉委員** 31日 말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12月22일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요. 22日 團體協約이 되었는데 거기서 된 것중에 安康에 있는...

○**盧武鉉委員** 그 質問 撤回하겠습니다.

26日에 시작된 것이 가라앉고 있었느냐 점점 더 올라갔느냐를 판단을 묻는 것인데 왜 자꾸 22日이 나오십니까? 이렇게 합시다.

地方勞動事務所에서 올라오는 文書가 판단의 根據가 되지요? 그렇지요?

長官으로서의 판단의 根據가 되지 않겠습니까? 地方勞動事務所 所長은 오랫동안 勞使問題에 관한 仲裁와 調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그 사람이 원만히 合意되도록 계속 노력중이라고 하면 合意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파악 됩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저희들이 할 義務라고 생각됩니다.

○**盧武鉉委員** 그렇게 계속 쓰여 있다는 것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그것은 저희들이 할 당연한 義務라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어떻게 자꾸 물어서 答을 끌어내려니까 힘이 드는데요. 결론을 낼게요. 이것으로 해서 勞使關係가 決定的으로 파괴됩니다.

상당기간 특히 韓國의 勞動運動을 지금까지 바라보면 그것은 이와 같은 對應方式에 의해서 87年과 같은 그런 엄청난 事態가 왔고 그 이후에도 強權으로 다스린 곳이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內務部長官으로서 판단하기 힘든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公權力이 介入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勞使關係를 發展시킬 것인가 惡化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그만 고려는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內務部長官 李漢東** 一般的인 勞使紛糾 一般企業의 勞使紛糾 現場하고 저희는 豐山金屬 安康工場에 이번에 警察力을 투입한 경우를 똑같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觀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結果的으로 지금 盧委員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일단 危險을 충실히 防止해 놓은 그런 事態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착실하게 勞使爭議 調停을 關係機關이 해 나가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혼자의 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더 상당히 惡化될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부터라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內務部傘下에 慶北道에 知事나 그 이하의 저희 行政組織 그리고 勞動廳 事務所 또 關係機關 그리고 豐山金屬 企業主側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면서 조속히 正常化되는 그런 方案을 한번 좀 성의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엇그저께 제가 어느 公式 모임에서 豐山金

屬會長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危險性있는 것들은 일단 豫防이 됐으니까 빨리 선량한 사람들을 불렀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빨리 正常化시켜야 여러 가지 勤勞者의 權益뿐 아니라 당신네도 그렇고 國防에 관한 여러 가지 차질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저 個人的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아입니다. 長官님!

앞으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 달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本委員이 묻는 質問의 要旨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合法性의 問題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介入의 必要性 그것은 危險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內務部長官 李漢東 그렇지요.

○盧武鉉委員 危險이 크고 目前에 급박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으로 해서 이 公權力 作用으로 해서 소위 比例의 原則에 관해서 지금 제가 質問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必要性和 比例 被害法益의 問題는 어느 하나가 決定的인 것이 아니고 서로 相對的인 關係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侵害되는 法益이 크면은 다소 危險하더라도 介入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취가 한 마리 있으면 온 집안이 「페스트」를 옮길 염려가 있어도 집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붙을 못 질러서 잡지를 못하고 다른 方式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어마어마한 危險이 目前에 다가와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피해가 있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나한테 쫓아 오니까 급한 김에 피하다가 어느 포장마차 하나들이 반아서 좀 겠다고 해서 큰 별개의 問題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比例의 原則에 있어서 소위 危險性의 問題는 이미 따져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받게 될 社會的 被害 個人的 法益의 侵害 社會的 法益의 侵害가 얼마인지를 內務部에서 과연 신중하게 고려해 봤느냐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 比例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違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물어 보고 있는데 자꾸 다르게 答辯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그 原則에 의해서 被害法益에 관해서 소위 勞使關係의 安定이라든지 勞動者가 勞動組合을 건전하게 育成해서 發展시켜 나간다는 그 勞動者들의 法益 社會的 安定에 관한 法益에 관해서 內務部는 얼마만큼 심각하게 따져 봤는가 그 점에 관해서 평가한 資料가 있으면 좀 내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關係資料를 전부 취합을 해서 좀 深層分析을 해서 한번 委員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아입니다. 사실은 이 問題에 관해서 전혀 治安 차원에서만 생각했지 危險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侵入하는데 누가 어떻게 밝히더라도 별 關係가 없다는 관점에서 侵入한 것이지 실제로 이로 인해서 勞動者들이 입을 侵害 그리고 새로 발생할 社會的 不安같은데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本委員은 단정합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斷定하는 이유가 勞動部에 事前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勞動部에 우리가 進入한다면 앞으로 勞使問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에 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國防部가 公文을 보내면서 指示된 여러가지 公文의 내용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이렇게 公權力을 投入함으로써 보호하려고 하는 國家次元의 安保와 관련된 國家利益이나 그 밖에 여러가지 이와 관련된 地域의 여러가지 安全問題 이런 큰 社會的인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일단 위험한 要素를 충분히 事前에 제압을 해 놓고 안전하게 보호해 놓으면 그것을 일단 계기로 해서 勞使問題도 時間을 가지고 진지하게 잘 協議하면 이제는 여유있게 잘 풀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기대는 그것까지는 했었습니다.

○盧武鉉委員 長官님! 本委員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公權力의 發動으로 보호될 수 있는 法益이나 현재의 위험은 말하지 않는다

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다른 음지의 문제 다른 한쪽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은 앞으로 勞使紛糾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해서 고려해 보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앞으로 다른 勞使紛糾現場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 그것은 安康工場은 이러한 特殊性이 있기 때문에 一般의인 경우와는 달리 一般的인 勞使紛糾現場에 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라고 저희는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말은 보호해야 될 法益과 豫知되는 위험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 쪽은 전혀 돌아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內務部長官 李漢東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勤勞者의 權益問題도 時間을 갖고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盧武鉉委員 그러면 長官께서 주장하시는 적어도 被害法益에 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公權力 發動의 한쪽 要件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한쪽 위험이 눈 앞에 급박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李海瓊委員이 충분히 따지기는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安康工場에서 12月28日에 代表理事가 慶州警察署長에게 보낸 公文에 보면 맨끝에 가서 結論部分에 現狀況下에서 操業을 지속하기는 不可能한 상태까지 도래했으며 全體 從業員의 生活安定과 社會에 부여된 生産目標을 達成하여 自主國防에 기여하고 社會秩序와 國家保安의 차원에서 非妥協의이고 오도된 노선으로 일관하는 現執行部와 배후에서 선동을 주도하는 者를 拔本塞源하기 위하여 職場閉鎖를 포함한 적절한 對策이 시급히 필요함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使用者가 보기에 非妥協의이고 오도된 노선으로 일관하는 執行部와 背後煽動者를 拔本塞源해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事業해 먹기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要請한 것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文書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위험은 오느냐 그냥 가만 놔두면 위험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勞動者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위험이 엄청나게 증폭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資料들은 그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明示하고 있기도 하고 豫示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대로 가만두면 혹시 무모한 것을 할 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요. 또 하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선의 勞動運動을 깨기 위해서는 부득이 배제해야 되는데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위험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12月28日 이 要請書의 結論部分은 후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사하고 있는데 安康工場會社 자체에서 勞動者들을 하루하루 감시해 가지고 만든 狀況日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公權力이 介入하지 않았을 경우 그대로 두었다라면 勞動者들이 얼마만큼 무모한 짓을 했을 것이냐 하는 점에 관해서 시사하는 부분 한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12月31日에 관해서는 狀況日誌 8時30分부터 한 시간 또는 10分 15分 단위까지를 分單位까지 전부 표시해서 한장 가득 썼고 했는데 11時에 와서 會社에서 우리한테 해 놓은 告訴를 취하하면 總會를 종결짓겠다 이렇게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2月28日에 와서는 26日에 罷業을 시작해 놓고 28日에 와서는 6個 條項의 要求條件을 전부 축소시켜서 2個의 간단한 要求만 하고 있습니다. 돈 1萬원만 더 늘려달라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勞動動向報告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1日字에 이제 그것도 다 필요없고 罷業을 했다고 會社가 告訴를 해 놓았는데 告訴만 취하해 주면 아무 때든 總會를 종결짓겠다 물론 약간의 반발세력은 있지만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11時40分에 中堅社員 代表와 勞組代表가 1次 면담을 합니다. 이때 勞組가 工場長과 會社社長들을 아무리 면담을 要請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앉으니까 中堅幹部만 만나는데 組合에서 명분만 생기면 總會를 거쳐서

公開謝過까지 한 후에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니 幹部가 告訴撤回問題와 이런 것은 우리 所管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명분만” 하는 명분중에는 告訴撤回問題와 약간의 獎勵金 얘기가 나옵니다. 체면만 살려달라 그러면 그만두겠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14時에 다시 勞組代表들이 中堅社員을 또 찾아가서 지금까지 다른 會社의 勞組彈壓은 休日에 이루어졌으니까 좋다 新正連休중에 立件 및 拘束을 보류시켜달라 그러면 休暇返納者들을 모두 집으로 보내겠다 幹部 新正連休중 立件 및 拘束 보류는 힘써 보겠다 그 자리에서 慶州警察局長과 道警局長에게 통화해서 화약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勞動部動向報告書에 보면 28·9日頃에 勞動者들이 협상하자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不法罷業에 대해서 公開謝過한 후가 아니면 대화도 안해 주겠다 會社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公權力이 개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역시 本委員이 이 資料를 보고 勞動者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진짜 가만 놔두면 극렬한 행위로 탄압과를 잡고 무슨 이상한 행위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여전히 是非는 남습니다. 그런데 그 是非에 관해서 적어도 勞動部 公務員이 진입 사실을 알게 되면 勞動部 公務員이라도 산통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의 판단만이 항상 관철돼야 되는 것이나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판단을 건전한 사고를 가진 건전한 社會通念에 의해서 判定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李海瓊委員이 지적했다시피 우리는 이 화약고가 폭파되었을 때 전부 죽는 것은 勞動者 자기 스스로와 그 家族들 모두 그 隣近住民들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勞動者가 할 것이라고 보느냐 안할 것이라고 보느냐 하는 것을 判斷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提示했던 여러 가지 事情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건전한 社會通念이나 이것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勞動部 公務員도 못 믿는 판단으로 보니까 勞動者들이 금방이라도 불질러 버리고

난리를 낼 것 같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 다음 이제 質問을 좀 하겠습니다.

87年度에 勞動者들의 가장 격렬했던 가장 과격했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勞動者들이 자기 몸에 휘발유 끼었고 「신나」 끼었고 石油 끼었고 몸에 붙을 지르는 일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끔찍스럽고 잔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內務部에서 한 모든 判斷은 會社에서 제공한 資料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本委員의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資本家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테러」를 했지만 勞動者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테러」를 해 본 일도 없고 자기 스스로 「테러」한 일도 없습니다. 물론 87年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蔚山市廳을 점거해서 방화를 했다 그러는데 蔚山市廳 本館에 기름 뿌리고 방화 안했습니다. 차고 한쪽 구석에 불 조금 붙인 것뿐입니다. 그 이외에 勞動者들이 아직까지 정말 우리로 생각해서는 분해서 잠이 안 올 일을 당하고도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밤낮 맞아도 社長 집에 아직 불지른 일 못보았고 그 누구에게 뒤에서 칼침놓은 일을 본 적 없습니다. 그 勞動者들이 자기 家族들이 사는 安康工場을 폭파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건전한 상식입니까? 언제 勞動者들이 이윤섭이 같은 사람 데려다가 음모하는 것 보았습니까? 언제 安企部 職員이나 保安司令部 職員들 처럼 社長과 뒷거래하는 것 보았습니까? 이 나라 勞動者가 나라 社會秩序를 언제 그렇게 決定的으로 파괴한 일이 있다고 무엇을 根據로 해서 그렇게 判斷합니까? 이것이 長官이 判斷한 危險性이고 警察局長이 判斷하는 危險性이나 하는 것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處委員님이 具體的인 事例를 들어가면서 勞動者에 대한 勞動問題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모든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安康工場은 우리나라의 그 동안에 있었던 유래가 전혀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한번 밖에 없는 勞使紛糾의 現場이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 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安康工場에 대한 危險性的의 判斷에 있어서 저희는 國防部에 보내온 公文에 根據해서 또 豐

山金屬 代表理事가 國防長官에게 보내온 내용이 결국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현재 安康工場의 여러 가지 危險性에 대한 판단 그것을 저희가 했는데 그 상당한 危險性에 대한 判斷을 토대로 해서 警察力을 투입한 것인데 結果적으로 이것이 투입하면서 不必要한 警察投入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紛糾를 수습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結果적으로 이것이 勞使紛糾 해결에 아무런 도움은 커녕 더욱 어려움만 가중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勞動部와 저희가 한번 다시 심층분석을 해서 오히려 이것을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政府次元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本委員의 質問要旨는 結果적으로 이렇게 됐다 저렇게 했다 하는 事後의 문제를 묻은 것이 아니고 公權力의 發動은 특히 警察의 物理力의 發動은 엄격한 要件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엄격한 要件을 갖추었느냐의 與否를 지금까지 따져본 것이고 그 다음 여기 報告書에 보면 12月31日에 가 가지고 勞動者들이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식발식을 하고 決死防衛隊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勞動部 公務員들한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勞動者들은 28日부터 公權力이 介入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지하고 그때 부터 알아서 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31日에는 介入하지 말아 달라고 살살 빌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介入한다면 우리는 決死抗戰하겠단 하면서 바로 介入을 전제로 해서 과격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의 행동들을 介入의 이유로 擧示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든 要件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강 따져본 바고 어떤 公權力이 行使됨에 있어서 適法하게 行使되었다는 것은 항상 事後의으로 評價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危險性이라든지 要件에 관해서는 충분한 根據資料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資料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公權力에 대한 適法性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長官님?

○內務部長官 李漢東 이것에 대한 慶北道警의 모든 마지막 판단 書類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治安本部로서도 關係機關에 公文을 접수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나름 대로의 심층분석을 해서 判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모든 行政作用은 法律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하거니와 政治적으로 議會의 통제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公權力 全國에서 警察들을 다 모아 가지고 하는 엄청난 公權力 行使에 있어서 그 發動要件이 이와 같이 적법했다 하는 것을 증빙할만한 資料들을 갖추어 두셔야 하고요 조금 전에 慶北道警에서 갖고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자리가 國會입니다. 內務部에서 했던 公權力 發動의 適法性 與否를 오늘 분명히 따지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그런 것은 예견되고 있습니다. 現地에 가서도 이미 調査가 됐고 따지고 있는 資料인데 아무 資料 안 가지고 나오셔서 가지고 어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內務部長官 李漢東 아니 그 資料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報告書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盧武鉉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아니요. 그 資料가 있기 때문에 報告書를 만들어서 오늘 報告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말하자면 公權力 行使의 不可避性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長官이 믿으면 國會議員들도 대부분 함께 같이 믿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 안하신 분들은 다 믿고 계신지 모르지만 만일 法을 소상하게 아는 분들이라면 事後統制가 가능하도록 報告書에 이렇게 쓰인 글 말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고 보고 의심없이 믿을 수 있을만한 資料들이 뒷받침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비로소 公權力을 發動할 수 있고 事後 公權力의 合法性을 담보할 수 있는 事後統制에 대비하는 公權力으로서의 자세이고 또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자리에는 성실하게 그것을 내 놓고 國會議員들을 설득하는 것이 성실한 자세입니다. 國民을 존중하는 자세이고 國會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지 못

하면 이 나라는 끊임없이 國民들의 人權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人權을 희생당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 行政責任者가 어떤 思考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國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國民들이 좀더 짓밟힐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本委員은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이 자리는 소위 國務委員의 政治的責任을 따지는 자리이고 어쩌면 法的인 責任까지 따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굳이 그래서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알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굳이 여기서 더 얘기한다면 警察官職務執行法上에는 경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들어 가겠다 하고 이미 약속해 놓고 慶北道警局長과 慶州警察署長이 절대 公休日 동안에는 公權力 介入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놓고 公權力의 行使는 合法的이어야 하지만 政治的으로는 國民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비록 그 國民이 강도라 할지라도 파렴치범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남치범과 인질의 몸값을 바꾼다 할 때라도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金令培委員長, 盧仁煥幹事와 司會交代)

그것이 선량한 勞動者들을 이렇게 속여놓고 밤중에 살짝 들어가 가지고 싹 이렇게 하고 정말로 제재합니다. 참 치사합니다.

너무 많이 물어서 다른 同僚委員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盧仁煥 盧武鉉委員 다 끝나셨지요? 다음은 新民主共和黨의 金炳龍委員 質問해 주세요.

○金炳龍委員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盧武鉉委員이나 李海瓊委員께서 豐山金屬의 勞使問題에 대해서 또 公權力을 직접 投入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은 質問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몇 가지만 內務部에 質問을 하겠습니다.

豐山金屬에 公權力을 投入할 때 하기 直前에 諜報를 事前에 入手하였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本部長이 答辯해 주십시오.

○內務部治安本部長 趙鍾奭 現地報告나 또 國

防部の 협조요청에 의해서 公權力이 投入됐습니다.

○金炳龍委員 이것은 本委員이 왜 質問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적어도 警察兵力 4,500名정도를 그 事業場에 投入하려고 하면 그 안에 施行의 대상이 몇名정도 지금 있다고 하는 것 정도는 諜報나 또는 事前에 探知한 다음에 投入하는 것이 아마 常識인 예라고 생각이 되고 또 作戰上에도 반드시 事前에 諜報를 蒐集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농성을 하고 있는 勤勞者가 約 20名정도가 있는데 단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4,600名이라는 兵力을 投入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兵力을 거기에 다 投入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約 한 100名이나 150名정도를 事業場에 投入하고 나머지 兵力은 彈藥庫 있는 쪽으로다 彈藥을 警備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內務部治安本部長 趙鍾奭 일부만 勤勞者 籠城場에 投入을 했고 대부분의 兵力은 彈藥庫 警備에 投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時 한 12時까지만 24時頃만 하더라도 100餘名이 농성중에 있다 이렇게 報告를 받았읍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일단 이 事件에 대해서 警察兵力을 投入해서 거기에서 농성중에 있는 勤勞者 全員을 連行하면서 일부는 拘束을 하고 일부는 不拘束을 하고 일부는 訓放을 해서 보낸 것으로 報告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內務部는 治安만 擔當하는 것이 아니고 그 地域이나 우리 國內에서 여러가지 잘못되고 또 治安上의 필요에 의해서 兵力을 投入함으로써 그 事業場의 勞使問題가 완전히 遮斷되었다 이렇게 調查團이 가서 직접 調查한 바로 보아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勞使間의 交涉窓口가 완전히 遮斷된 가운데에서 앞으로 이 收拾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治安當局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本部長이 答辯을 해 주세요.

○內務部治安本部長 趙鍾奭 豐山金屬의 收拾策은 아까 長官께서 報告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地域의 單位機關長과 勞動部 그리고 會社側에 요청을 해서 收拾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炳龍委員 本委員이 볼 때에는 이 事件이 벌써 約 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도 여기에 대한 收拾方案을 勞動部나 內務部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案을 하나 제시할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現代重工業 勞使紛爭 豐山金屬 勞使問題 이 문제를 政府次元에서 勞動部가 중심이 되는 內務部 法務部 이렇게 해서 特別收拾對策委員會를 構成해서 실지 現地에 나가서 모든 사항을 거기의 被害勤勞者나 또는 勞動組合 幹部나 또는 會社側에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調査해서 그 特別委員會가 收拾할 수 있는 하나의 構成體를 構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勞動部長官에게 質問드리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우리 金炳龍委員께서 勞使問題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아주 충정어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은 現代重工業이나 豐山金屬은 防產業體로서 또 여러가지 特殊性에 비추어서 아주 하루빨리 操業이 계속되는 것을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勞動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冒頭에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豐山金屬이나 現代重工業이 正常的인 操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關係機關과 필요하면 협의해 나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炳龍委員 이 문제는 노력한다는 그러한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現代重工業같은 경우는 從業員이 2萬3,000名에 그 家族을 합치면 7萬名입니다. 그 7萬名의 지금 그 분들의 生計問題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豐山金屬의 3,500名도 역시 1萬名이 넘습니다.

그러면 도합하면 8·9萬名의 우리 勞動者家族들이 生計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內務部나 勞動部는 道義的인 책임도 느껴야 됩니다. 벌써 이 事件이 발생된지 한 달이 지나 40日 넘어서 50日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收拾對策을 마련하지 않고 단 그 部處에서

성의껏 그 組織안에서만 노력을 하다 보니까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家族을 생각하든지 또는 우리 勤勞者를 생각을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勞使가 交涉窓口를 만들어 주고 또 合理化시켜 주기 위해서는 收拾特別對策委員會를 各部處間에 구성을 해서 직접 現地에 나가서 收拾을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解雇者問題에 대해서 勞動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解雇者가 豐山金屬에 지금 4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情報를 입수한 것을 보면 罷業에 가담한 勤勞者 約 한 4·50名을 會社側에서 懲戒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事件은 會社가 이러한 방법으로써의 強更措置를 계속한다고 하면 여기에 勞使紛糾는 아마 앞으로 해결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勞動部나 內務部에서 즉시 現地에 알아 봐서 좀 더 會社로서도 폭넓게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서 勞使間의 交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措置를 우선적으로 좀 해 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答辯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金炳龍委員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勞使紛糾가 출발이 되면서 勤勞者들의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家族手當 住宅手當 深夜手當 週44時間問題 退職金累進 이와 같은 한 너덧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家族手當이나 住宅手當 또는 深夜手當 이와 같은 문제들은 거의 主務官廳이 좀 더 직접 이 문제에 가담을 해서 勞使가 協議를 할 수 있는 中間役割을 해 준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爭點으로 되어 있는 이 네 가지 문제는 앞으로 執行部가 확실하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勞使間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도 主務官廳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도 극히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도 위에서 勞動部에서 下部의 그 地域事務所나 이런데 지시를 하지 말고 적어도 中央次元에서 어떠한 收拾對策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現地에 나가서 收拾을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勞動部나 內務部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盧仁煥 金炳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南載熙委員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載熙委員 마지막 質問 하려니까 시간이 새벽 한 時쯤 되어서 委員님들이나 또는 방청하시는 분한테도 미운 털이 박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調查團도 4黨으로 구성됐으니만치 이 3黨의 얘기만 듣고 나머지 한 黨의 얘기를 또 안듣는다는 것도 균형에 안맞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委員님께 부탁드립니다.

아까 李海瓚委員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같이 調查를 갔던 사람으로서 李海瓚委員이 말씀하신 그 사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異見이 없습니다. 대충 그런 얘기다. 다만 그것을 놓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또 저는 저대로 다르고 李海瓚委員은 李海瓚委員대로 다르고 판단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李海瓚委員이 指示한 사실이 대체로 調查團들이 같이 본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李海瓚委員도 마침 이 發言을 하시면서 지금 李海瓚委員이 안계시는데 나중에 速記錄에도 보시기를 바라는데 李海瓚委員이 發言을 하면서 南載熙委員도 같이 가서 만났지만 이런 얘기도 넣고 또 幹事인 우리 盧仁煥委員도 같이 가서 봤지만 해가지고 꼭 저나 盧仁煥委員이 전적으로 李海瓚委員과 모든 것을 同感인 것처럼 이렇게 發言途中에 넣었습니다. 그런 까닭도 있고 해서 조금 제가 李海瓚委員이 指示하지 않은 사실을 몇 가지 指示를 해 두는 것이 균형을 위해서 사태를 보는 눈에 있어서 좀 均衡感覺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勞動部가 勞動委員會에서 報告한 것이나 오늘 內務部가 이 連席會議에서 報告한 내용은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이미 아시는 문제니까 되풀이하지 않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調查를 하면서 거기 報告內容에 없는 것을 좀 보고 듣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勞組代表들이 會議를 할 적에 폭악이 있는 위험장소를 先占을 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文化部의 關係者가 만든 日日報告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물어 보았습니다. 矯導所에 面談을 가셔도 拘束者 중에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만나고 네 사람을 따로 따로 만나면서도 물어 보고 다른 데서도 물어보고 여러번 물어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是認을 합니다. 그렇게 위험장소를 先占한다고 決議한 적은 없다.

다만 論議하는 과정에서 爆藥物이 있는 危險場所를 先占하고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危險物 그러니까 爆藥物을 先占해서 싸워야만 된다 이런 것이 決議는 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論議가 자기네들 會議過程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라 그것이 이제 하나 李海瓚委員이 같이 들은 얘기인데 말씀을 안하신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會社側에 가서 우리 質疑를 하는 과정에서 11월에 같은 安康工場에 또 두류라를 골짜기가 있는데 두류工場에 柳纘佑會長을 비롯해서 세 사람의 絞首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盧仁煥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래서 柳纘佑會長 이름 써놓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工場長까지 세 사람의 이름을 써놨는데 물론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할 때 교수대라고 해서 진짜 교수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이 勤勞者들도 교수대를 만들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만들었다 왜 만들었느냐 말하자면 生理的인 현상을 보러가는 데도 證을 타야 될 정도로 하도 經營主들이 엄하게 가혹하게 하기 때문에 하도 미워서 교수대를 세개 만들었노라 그래서 勤勞者側도 시인한다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대가 꼭

사형할려는 교수대는 아니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살벌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報告書에 안나온 것이고 우리가 가서 조사하다가 들은 얘기로는 安康하고 溫山을 勤勞者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警察이 저지하는 가운데서 옥신각신했던 것같아요.

그러니까 勤勞者들이 「버스」 한대쯤 되겠지요. 이 사람들이 慶州警察署로... 警察報告에는 각목하고 「파이프」를 가졌다고 했는데 勤勞者들은 「파이프」는 없었고 각목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慶州警察署에 사과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물러가다가 거기 자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까마는 박물관앞에서 저지되어 가지고 실갱이한... 그러니까 사실로써만 본다면 각목을 가지고 「버스」 한대쯤이 警察署를 勤勞者들 얘기는 사과받으러 간다는 얘기고 警察쪽에서는 습격해 왔다는 얘기고 그런 사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李海瓊委員님 말씀중에서... 대충 다 맞는 얘긴데 勞組側에서 사실상 年末에 사태를 일단락 지울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警察이 介入되어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의 얘기는 會社側은 그것이 하나의 「체스처」다 僞裝協商戰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도소에 가서 면담했을 때 調查報告書에 나옵니다. 7「페이지」에 나오는데 勞動組合支部長 정정길씨를 우리가 맨먼저 만났지요. 그랬더니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加減하는 것이 아니고 調查報告書에도 그대로입니다.

이 支部長태도가 상당히, 당당합니다. 이 支部長얘기가 우리의 목적은 勞動關係諸法이 잘못되어 가지고 防衛産業體의 爭議權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防衛産業體의 爭議權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한 벽을 허무는데 있다.

왜그러냐 하면 開口一聲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지요. 제가 이것을 닦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勤勞者들이 勞動關係諸法이 잘못되었으니까 改正鬭爭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勞動組合支部長이 第1目的을 갖다가 防衛産業體 爭議權確保를 위하여 부당한 벽을 허무는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豐山金屬自體에 月給 더 달라 休日 달라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차원이 하나 높은 얘기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그 支部長 얘기를 그대로 믿고 論理展開한다면 豐山勞組에서 協商을 잘 해도 이것을 豐山工場 權限밖의 얘기란 말이죠. 立法法制上的 얘기니까.

따라서 분쟁세앗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李海瓊委員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30日이나 31日에 介入만 안했으면 해결될 여지가 있다 한대 대해서 이런 사정이 또 있었다. 따라서 兩側面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그밖에 자지레한 얘기가 많은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調査小委報告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주로 여기서 內務部와 勞動部의 이제까지 李海瓊委員이 많이 강조하시고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報告書가 상당히 主眼點이 되었습니다.

다만 綜合檢討課題 第1項에 安康工場의 경우 폭약이 있는 工場이므로 安全措置에 관한 차원은 별개로 하고 생각할 때 이것이 勞使紛糾解決에 도움이 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安全措置에 대해서는 대단히 얘기하기가 사실은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小委員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까마는... 따라서 安全問題에 대해서 斷定的인 얘기를 우리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래서 勞使紛糾解決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은 걱정입니다. 잘못된 점이 많다. 다만 安全問題로 국한해 볼 때는 우리가 결론을 못내렸다 따라서 調查報告書에도 별개로 치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安全問題를 본다면 여기 內務部報告나 勞動部報告에도 상당히 과장이 있는 것같아요.

왜냐하면 폭약이 그렇게 많으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原爆 몇개정도의 폭발이 가능하다 인근 浦項이 다 날아간다 이런 식의 얘긴데 그것이 전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勞動委員長도 휴게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폭약이 분리가 되어 있지 連鎖爆發되도록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군데만 폭발되어도 安全問題가 크다말이죠. 전부 폭발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北傀軍이 쳐들어 오기 전에는 거기서 한군데 두군데는 폭발시킬 수 있겠지요. 전부 폭발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政府側에 말씀하실 때 너무 겁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조금 폭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全體的인 數가 폭발해 가지고 「허로시마」 몇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安全問題의... 제 생각에는 第1責任者는 會社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일 수 없어요. 國會議員인 저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會社가 폭약이 많아서 安全問題가 있다 일단 그랬으면 會社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가끔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李海瓚委員이 指示하지 아니한 몇가지 사실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李海瓚委員이 指示한 것과 합쳐서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 경우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다 그것입니다. 판단이 어려워요 판단이 어려우면 100분의 1의 위험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또 會社의 정식 요청이 있으니까 대비하는 것이 또 政府의 태도는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보고서에서 勞動部와 內務部關係가 어딘지 이게 돼먹지 않았다 해서 보고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다項을 보면 이게 內務部와 勞動部가 영 協調體制가 돼먹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우리 勞動調査委의 보고서가... 그런데 오늘도 答辯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몇배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잘못되었다는 것이 참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野黨委員이 아니고 與黨委員인데 이 정도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돼도 정말 한참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시속말로 너무 잘못됐어요. 왜? 아까 李海瓚委員도 다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勞動委員會에서 勞動部長官이 內務部와 일체 협의한 바 없다 公

權力 警察의 投入 問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浦項勞動事務所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 물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직전에 動勞監督官 와서 대기하라 이렇게 밖에 물렀다 그리고 慶州警察署나 慶北道警局長이나 아까 얘기가 취소할 얘기인데 公式로 취소하고 사과할 아까 李海瓚委員이 요구할 때 간단히 했음니다마는 長官이라도 그 문제는 취소하고 사과할 얘기인데 現地警察도 알려지면 비밀이나 누설되고 그래서 상의 안했다 아까 李海瓚委員이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이 浦項事務所 警備警察署 「레벨」에도 일체 안됐고 大邱 勞動廳이나 慶北 道警차원에도 일체 안됐고 일체 협조가 없었습니다. 없고 오늘 또 밝혀진 것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國防部에서 그 서류를 보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發送處가 內務部 勞動部 治安本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內務部에서는 여하간 잘 됐건 못 됐건간에 그것을 그대로 존중을 해서... 잘 됐다 못 됐다 얘기 아닙니다. 다만 國防部에서 그런 公文이 있으니까 慶北道警에다 내려 보낸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勞動部는 이것이 國防部長官이 보낸 것을 갖다가 아까 얘기 그대로입니다. 局長이 갈아 뭉개버렸다 말이에요. 長官은 모릅니다. 長官은 國會에서 虛偽答辯을 한 것이지요 요전에... 그렇지요? 일체 公權力介入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다 그러니까 國防部도 포함해야지요. 內務部만 그때 안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중요한 公文을 받아 가지고 局長의 전철이다 해 가지고 그냥 地方勞動事務所에만 주의해라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라면 그것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安全側面에서 公權力介入은 그렇다 하고 저는 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만 이것을 勞使問題로 볼때는 완전히 영점이다 그것입니다. 政府의 대처가... 그리고 요전에 靑瓦臺에서 저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勞動部 무슨 課長 하나 참 똑똑합니다. 大統領이 물으니까 아주 정말 똑똑하게 소신있게 公權力이 介入해 가지고 勞使關係解決에 도움이 안된다. 그런 요지의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거꾸로 됐어요. 그

課長이 박課長인가 박우병 課長? 박 무슨 課長이지요? 아주 똑똑해! 公權力이 介入되어서 이것이 도움이 안돼요. 勞使關係側面 安全배놓으면 전혀 안되게 됐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治安本部長이 거느리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警察幹部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꼭 「베트남」戰에 말려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美軍이 「베트남」에 제일 많이 介入했을 때 50萬名이 介入을 했어요 50萬이... 半百萬이... 50萬名이 介入해 가지고 10餘年 싸우다가 결국 손들고 나왔습니다. 아무 해결 못했다 50萬名이나 투입해서... 지금은 50萬名이 아니고 4,000名 가까운 警察兵力을 투입했는데 이 幹部 말마따나 그 사람이 公式會議에서 얘기 안했기 때문에 職銜이나 名稱은 姓名은 얘기 안 하겠어요. 私席에서 나한테 이것은 꼭 「베트남」戰에 우리가 끼어든 거나 똑같은 형국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勞組가 組織이 상당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됐다 잘못 됐다는 떠나서 勞組가 엄청나게 團結力이 있는 勞組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勞組가 생겨난지 불과 두서너달만에 4,000 가까운... 安康工場의 勤勞者들중에 삼천오백백명이 조직이 됐습니다. 불과 두달인가 석달만에... 엄청난 조직물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溫山을 압도할 溫山工場을 압도할 정도의 安康工場의 勞組가 돼버렸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求心力있고 團結力있게 조직된 勞組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勞組의 事務室을 방문했습니다. 調查團이 같이...왜? 工場안에 本部 뒤에 있는 勞組事務室은 警察이 다 훑어 갔으니까 또 警察이 다 거기 警戒를 서고 있으니까 밖에 安康邑에 農協事務室이라든가 어디에 勞組事務室을 임시로 설치해 놓았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副支部長 하나가 公式로 委員長한테 위임을 받아서 委員長權限 代行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또 異端勢力이 있어요 전 나쁘다 좋다 상황을 떠나서입니다. 異端勢力이 國會調查團이 왔다 그러니까 나타났어요.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다른 우리는 다른 패다 이렇게 무슨 推進委

員會라고 그래요. 그런데 幹部는 하나도 거기에 안끼고 그냥 平勞組員 12名만이 호응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만든 조직인지 그것은 어디에서 시켰다 안 시켰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하간 勞組말고 他組織이 하나 생겼는데 앞에 字는 모르겠고 맨 끝이 推進委입니다. 推進委라고 해 가지고 아주 대담하게 그 勞組事務室에 나타났어요. 油印物도 만들고 나타났는데 平勞組員 12名으로 조직을 한 상태가 한 1週日이상 계속해서 12名이다 그러면 그 4,000名 가까운 警察兵力이 투입이 되고 連行이 되고 拘束이 되고 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異端者가 나타난 것이 幹部는 하나도 없고 平勞組員 12名밖에 우리가 갈 동안에 규합을 못한 상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이미 있는 勞組가 얼마나 강력하게 단결된 勞組냐 이것을 반증한다 말이지요. 그런 여러가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때 이것이 「베트남」戰爭이다 것입니다. 대화의 상대는 역시 그 勞組가 아니냐 그 勞組를 제쳐놓고 대화를 하려고 할 경우는 이것이 「베트남」戰爭에 介入한 꼴처럼 된다. 따라서 安全을 위한 介入으로서는 그것은 더 전문가에 맡기고 특히 會社가 요청했으니만큼 1次的인 책임있는 會社가 요청했으니만큼 會社側에 맡긴다고 하고 勞使紛糾라는 측면에서 볼때는 內務部와 勞動部가 죽을 쑤는 바람에 특히 勞動部가 죽을 쑤는 바람에 이것이 영 더 해결이 더 어렵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部處間의 協力關係가 잘못된데 대해서는 이제까지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것을 다시 되풀이 않겠습니다. 되풀이 하면 상당히 우리 政府部處가 창피한 얘기입니다. 內務部나 勞動部나 전부 아주 창피한 얘기입니다. 國民들한테 이대로 공개를 하면... 따라서 勞使關係로서의 豐山金屬問題에 대해서는 勞使關係라는 측면에서는 政府가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무슨 실수냐? 勞動部와 內務部の 協力體制가 不在했기 때문에 같은 公權力이 들어가도 언제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다 다릅니다. 아까 盧武鉉委員 얘기합니다 李海瓊委員도 얘기하고... 勞組를 안 건드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 勞組를 건드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언제 들어가느냐 「타이밍」의 문제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가서 警戒任務만 한다든지 勞組는 그대로 놔두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우리 國民의 稅金을 쥐가지고 - 勞動廳을 勞動部로 독립을 시켜서 勞動行政 한번 잘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勞動部가 영 主導의인 역할을 못하고 아까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李海瓊委員이 그랬나? 그것은 뭐 內務部의 局정도도 안된다는 느낌을 國民한테 주느냐 그런 역할밖에 못했다 그런 점에서 반성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內務部長官이나 勞動部長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張永赫 南載熙委員**께서 여러가지 現場에 갔다오신 감각에 어떤 차이점에 대한 말씀과 또 앞으로 勞動行政을 꾸려나가고 政府綜合行政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단 委員님 質問에도 말씀드렸지만 勞使問題는 勞使 當事者가 相互間에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法 테두리內에서 對話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 이러한 合法的인 自律交涉行爲을 조속히 정착토록 하는 것이 勞動部의 主要任務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爭議調停法이라든가 또 國家의 基本 憲法秩序에 대한 勞使間에의 여러가지 문제가 되었을때 南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政府 部處間에 협조를 필요로 할때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勞動部가 이제 좀더 能動的으로 勞動部가 주가 되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紛糾事態의 수습대책에도 勞務管理上의 문제라든가 安全管理上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勞使間에 對話의 창구문제등 이런 것은 勞動部로서도 어떤 信念을 가지고 해결을 하루속히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內務部長官 李漢東** 部處間의 業務協調問題가 여러가지로 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이 깨우쳐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公權力的 投入이

勞使紛糾 해결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큰 장애가 되었다고 결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의 오히려 조속히 타결을 볼 수 있는 어떤 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그런 治安次元의 문제와 결들여서 한쪽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現場에 다녀오신 생생한 그런 감을 토대로 해서 많은 證人들을 만나고 또 現場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陳述을 직접 들은 그러한 모든 資料를 취합한 토대위에서 내리신 결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政府次元에서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속한 紛糾解決 그리고 操業 正常化를 위해서 저희 部로서도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지요?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豐山金屬에 警察力을 投入한문제에대한質問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하기 전에 委員長으로서 政府側에 몇마디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內務 勞動連席會議는 12代 13代에 이르기까지 처음 열리는 連席會議였습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다루신 근간의 勞使紛糾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한 政治的 社會的 커다란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긴 얘기할 필요없이 이 勞使問題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의 政治安定 社會安定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政府側에서는 答辯을 통해서 이미 저질러진 일을 合理化시키려고 하는데 급급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豐山金屬에 警察力을 投入하고 現代重工業에 救社隊라고 하는 것인지 愛社隊라고 하는 것인지 이 暴力團에 의해서 「테러」가 가해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勤勞者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수단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이나 하는 것은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與黨所屬委員이신 南載熙委員께서도 그야말로 가슴에 맺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코 公權力이나 暴力團에 의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豐山金屬事件과 現代事件으로 인해서 그 兩個會社 내지 「그룹」에 국한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勞使現場의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公權力이나 暴力가 지고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하나 얘기합시다. 우는 아이를 우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서 해결할 생각 아니하고 시끄러우니까 울지마라 매질해서 그 울음소리를 잠재우려고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우는 아이는 배가 고파 울면 밥을 주어야 하고 어디가 아파서 울면 치료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 勞使問題에 대처하는 政府의 자세는 그렇지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9宣言 起點을 기준으로 해서 統計上으로 한번 봅시다. 6·29宣言 이전에 公權力으로 모든 勤勞者들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6·29宣言 이후에 民主化의 물결을 타고 勤勞者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6·29宣言이 있던 해 87년에는 勞使紛糾가 3,700餘件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6·29宣言 이후인 7·8월에 발생한 事件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昨年 88年度에는 1,800件이 발생했습니다.

20餘年동안 억눌렀던 勤勞者들의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과거처럼 힘으로 누르는 이 政策으로 갈 것이냐 스프링을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公權力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나중에 스프링이 튀어올라올 때에는 지금보다도 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자신하고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與다 野다 이러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政府나 野黨이나 또 國務委員이나 國會議員이나 國家를 위해서 다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우리 4,200萬國民이 내일의 낙원을 향해서 내일의 행복을 향해서 우리는 높은 고개를 같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상당히 정상까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앞장서서 잘 갑니다. 그런데 돈 없고 가진게 없고 또 병들고 힘없는 사람은 뒤에 처집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서 그 고개를 4,200萬 國民이 무사하게 잘 넘게 할 수 있는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政府에게 있습니다. 政府와 가진者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4,200萬 國民 가운데 한사람도 낙오자 없이 우리는 다같이 낙원으로 가야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勞使問題를 政府가 좀 봐주시고 앞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속히 産業平和가 올 수 있도록 政府로서는 과감한 政策施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南載熙委員 말씀 가운데 1個 課長도 大統領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所信을 피력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國務委員 두분께서 여기 계신데 아무쪼록이면 진실로 勞使問題가 가까운 時日內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진정한 勞動政策을 이 政府가 수립할 수 있도록 두분께서는 각별히 政府앞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께서 미처 다 質疑를 못 하신 분도 미진한 부분 이런 것은 內務委員會를 통해서나 勞動委員會를 통해서나 따로 보더 심층있는 對政府 質問을 통해서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 連席會議에서 質疑準備를 했습니다마는 미처 시간상 못 하신 委員님께서서는 書面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政府側의 書面答辯을 받아서 會議錄에 기록이 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러 委員님들 그리고 內務部長官 이하 內務部 幹部 여러분! 勞動部長官 이하 勞動部 幹部 여러분! 밤늦도록 고생하셨습니다. 委員님들이나 行政府則이나 國家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하는 것은 愛國의인 견지에서 우리는 다 보람을 느끼면서 집에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會議를 散會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01時35分 散會)

○出席委員

勞動委員會

金 令 培	南 載 熙	盧 仁 煥
安 瓚 熙	李 康 熙	鄭 宗 澤
李 相 洙	李 海 瓚	盧 武 鉉
柳 昇 珪	李 仁 濟	金 炳 龍

內務委員會

慎 順 範	吳 坦	李 東 根
趙 世 衡	文 正 秀	沈 完 求
吳 景 義	曹 萬 厚	

○出席專門委員及立法審議官

勞動委員會

專 門 委 員	卓 英 鎮
立 法 審 議 官	宋 芳 燮

內務委員會

專 門 委 員	辛 裕 洲
立 法 審 議 官	李 東 一
立 法 審 議 官	嚴 萬 燮

○出席國務委員

勞 動 部 長 官	張 永 喆
內 務 部 長 官	李 漢 東

○出席政府委員

勞 動 部

次 官	李 龍 俊
企 劃 官 理 室 長	鄭 東 佑
勞 政 局 長	具 然 春
勤 勞 基 準 局 長	金 基 德
職 業 安 定 局 長	金 濟 憲
職 業 訓 練 局 長	金 禹 誠
勞 動 保 險 局 長	姜 斤 熙

內 務 部

次 官	金 榮 珍
次 官 輔	李 孝 桂
企 劃 管 理 室 長	洪 瑛 基
地 方 行 政 局 長	金 英 煥

治 安 本 部

本 部 長	趙 鍾 爽
第 2 調 整 官	金 孝 恩
第 3 調 整 官	李 寅 燮
第 4 調 整 官	李 鍾 國
第 5 調 整 官	白 亨 詐